

장백산천지

제 115 호

2008년 12월 12일

금요일

“3 퇴”를 권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성경·계시록”에는, 붉은 악룡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재앙을 받는다고 예언했다. 중공은 바로 이 예언에서 가리키는 붉은 악룡이다. 중공이 범한 죄악이 너무 커서 하늘은 반드시 중공을 멸망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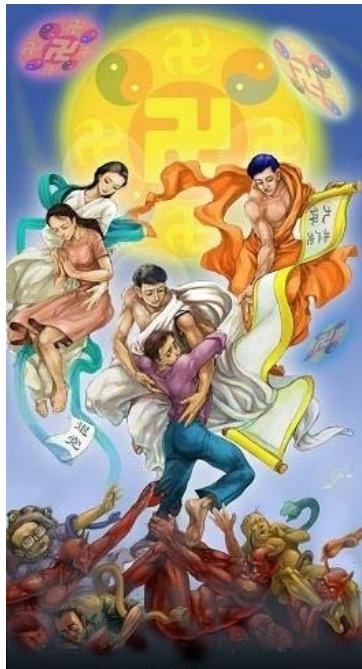
“찐싼런”을 수련하는 파룬궁학원들은 명리를 따지지 않고 정권을 탐내지 않으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무사무아한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제 닥쳐올 위험을 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공의 모진 박해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재빨리 “3 퇴”(퇴당, 퇴단, 퇴대)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파룬궁학원들의 위대함을 충분히 설명한다.

형식상에서 본다면 파룬궁학원들이 “3 퇴”를 권고할 때 당조직을 찾아 가서 신청을 제출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에서 진정으로 가명 혹은 애명으로 “3 퇴”하여 사악의 표기를 없애어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리하여 형식상에서 평화롭고 누구의 리익도 해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회의 동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멜번에서 4600 만 용사들이 “3 퇴”함을 성원



지난 11월 29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번퇴당센터에서 4600 만 용사들이 “3 퇴(퇴당, 퇴단, 퇴대)”함을 성원하는 대시위 행진을 거행했다. 정채로운 요고대의 연기와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 모방시범은 수많은 시민의 주목을 끌었다.



파룬궁학원들이 “3 퇴”를 권하거나 사람들이 “3 퇴”를 하는 것은 모두 언론자유와 사상자유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3 퇴”를 권했다는 이유로 파룬궁학원들을 마구 체포하고 판결하는 것이 바로 위법인 것이다.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니 퇴당하여 생명을 확보하자”는 것은 완전히 유신론의 리론인 것만큼 중공은 만약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중공은 1999년부터 거짓을 조작하여 파룬궁을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잔혹하게 탄압하고 박해하여 하늘이 용서할수 없는 가장 사악한 죄를 지었다. 중공은 잔혹함에 습성이 되고 걸어 온 길이 너무 검어 좋게 변할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신은 중공에게 최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파룬궁학원들이 중공이 멸망하기 전에 “3 퇴”를 권고하는 것은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전화위복(转祸为福)의 좋은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룬궁학원들의 권고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하루 속히 “3 퇴”하여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아야 한다.

홍콩 각계에서 “3 퇴”대조류를 성원

지난 11월 23일, 홍콩 각계에서 “3 퇴(퇴당, 퇴단, 퇴대)를 성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세계퇴당봉사센



터 주석 고대유(高大維)는 《중공사악의 통치는 중국의 모든 천재인화의 근원이다. 2008년에 빈번히 일어난 대폭설, 대홍수, 광산함몰, 사천대지진, 독우유 등 재난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다.”라는 그 함의를 깨닫게 되였다.》

그칠줄 모르는 박수소리

중국대륙의 X대학교 X계에서 우수교원평선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파룬궁학원인 정교수와 무당파인사 진교수의 표수가 제일 많았고 상등했다. 명액이 한명이여서 계주임은 난처해 했다.

정교수는 먼저 말했다. 《진교수를 올려놓으세요. 난 짧으니깐 아직 기회가 많지요.》 진교수도 말했다. 《난 오래지 않아 퇴직하게 되니 도덕이 고상하고 업무와 학술에서 앞장 선 정교수를 올려놓읍시다.》 두사람은 서로 양보했다.

계주임은 본교 교사조직처 처장을 찾아가서 선거정황을 말했다.처장은 정교수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리유로 선진교원으로 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품은 계주임은 교장을 찾아갔다.

인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국내 학술계에서 위망이 높은 교장은 계주임의 보고를 듣고 나서 결연히 말했다. 《무엇이 실사구시인가? 무엇이 지식과 인재를 존중하는 것인가? 무엇이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인가? 무엇이 대중의 민주선거를 존중하는 것인가? 명액을 하나 더 증가하여 두 교수를 모두 올려놓으시오.》

교사절 표창대회에서 파룬궁학원 정교수가 주석대로 오를때 장내에는 떠나갈듯한 박수소리가 오래동안 그칠줄 몰랐다.



복 받은 한 착한 녀성

호북성 공안현 호제진에 30 여세인 한 착한

녀성이 있었다. 중공이 파룬궁학원을 잔혹하게 박해하던 2004년도였다. 그는 늘 파룬궁학원을 도와 대법책과 자료들을 깨끗한 곳에다 잘 보관했다. 어느날 아침, 그는 자전거를 타고 매원중학교부터 도시구역을 지

나는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자전거 앞바퀴가 빠졌다. 땅바닥에 곤두박힌 그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아프지 않았고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다. 평소에 파룬따파를 공경했기에 재난에 부딪쳤을 때 하늘에서 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인기를 끈 파룬궁대오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성탄시위행진에 300여개 대오가 참가했는데 그중 파룬궁대오의 규모가 제일 크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산에 핀 《돌꽃》

광서도 안요족자치현의 여러개 산에 《돌꽃》이 펴다. (아래사진) 《남국아침신문》 2008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돌꽃》을 찾으러 차를 타고 도안 등강향 홍도촌으로 갔다. 이 촌의 옆에 있는 청산련의 산허리에서 《돌꽃》을 발견했다. 직경이 2cm 좌우인 《돌꽃》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다. 또 기암절벽에서 《돌꽃》들을 발견했는데 어떤 것은 꽃봉오리가 피려 하고 어떤 것은 꽃송이가 활짝 피여 기이함과 아름다움을 다투었고 어떤 것은 꽃들이 시들어 떨어질듯 했으며 어떤 것은 꽃잎이 갈색이고 밖에서 부터 안으로 색갈이 점점 열어졌으며 어떤 것은 화심(花心)이 흰색을 띠여 해빛에 눈부셨다.

더욱 신기한 것은 《돌꽃》마다 꽂피는 시기가 있었는데 생화처럼 일정한 시기를 지나 한번씩 피여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시들어 떨어졌다. 《돌꽃》이 피고 지는 시간은 몇년 혹은 몇십년이 걸린다고 한다.

《돌꽃》이 피고 지는 현상은 유물론관점으로 해석할수 없지만 수련계의 《만물은 령혼이다.》는 관점으로 볼때 능히 이해할수 있다.



폭로

박해

연변 박해소식

- 지난 11월 27일, 연변파룬궁학원 황가진(黃家珍)은 모 학교부근에서 진상을 이야기하다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연길시건공가연청사회구역에서 각종 선전활동을 벌려 연길시텔레비전방송국을 청해 파룬따파를 모욕하는 텔레비죤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근간에 방송할 예정이다.